



수입소비 검역기준 마련/검토

(8월31일14:00에 수입소비 검역기준 '안' 마련)

최 규 칠 사무총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담당공무원은 생산농가와 꿀벌 질병 감염에는 뒷전...
기구판매업자 한 사람을 위한 검역원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난 3월부터 중국의 수입소비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각종 질병(전염병)을 우려하여 양봉업계에 관련된 학계,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입소비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건의해 왔다.

농림부에서는 검역원을 통해 수입소비를 통한 꿀벌의 병운체에 오염되어 전파시킬 가능성 여부를 검토 및 평가하고, 그 결과 전파가능성이 있을시 지정검역물로 지정고시 할 것을 지시하여 지난 4월4일 소비를 지정 검역물로 분류하기 위해 입법안을 지정·고시하고, 4월7일 소비를 지정 검역물로 지정하였다. 이후 검역원에서는 4월10일 WTO사무국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90일이 지나 별 다른 의견이 없어, 검역원에서는 국내 검역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안' 을 마련하였다.

검역원의 검토 안 내부 문건 중 꿀벌위생조건에 준한다는 원칙하에 마련된 내용이 수입소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본 협회 전기현 회장은 검역원장 등 관계공무원들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앞으로 수입소비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담당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벌집(소비) 유통은 질병감염을 우려하여 세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현재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소비(벌집)가 수·출입 되는 전례가 없다.

이러한 본 협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소비에 대한 새로운 검역기준을 마련 하기위해 8월31일14:00에 검역원에서 협회, 학계, 농가 등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역기준/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여 검역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본 협회에서는 양봉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새로운 검역기준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투쟁하고 관계자 문책을 요구 하겠다고 전기현 회장은 말했다.